



가족을 읽다, 가족을 위해 읽다

## 결혼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온전합니까?

화려하지만 무거운, 따뜻하지만 잔인한...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자와 남자가 결혼했지만, 서로 깊이 사랑해서 한 건 아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 본 적 없는 같은 회사 동료일 뿐이었다. 그러다 술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한 번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임신, 여자와 남자는 고민하다가 '계약 결혼'을 한다. 일단 결혼은 하지만 1년 후 그 결혼을 유지할지 최종 결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내용. 회사에는 결혼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비밀은 폭로되기 마련. 사실은 확인한 동료들은 늦은 축하를 해준다. 하나 그즈음 그들의 결혼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고 느꼈던 여자는 이혼을 결심한다. 위기 속에서 남자는 여자를 향한 자기 내면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한다.

최근 종영한 주말 연속극 <오작교 형제들>의 내용이다. 단순히 '드라마니까'라며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내밀한 속내를 알게 해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이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신의 생각대로 온전히 행동하며 산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할진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사는 경우가 가능하겠는가.



이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보혈이 없는 민족도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다.

요즘 가족학 심리학자들은 부부관계와 아동발달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부관계가 아동의 복지감과 장기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의 행복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릴 때부터 공부만 많이 시켜도 좋은 건 아니라고 확신하다 보니 다른 것에는 별 관심도 없다. 그러나 부모들이 심한 갈등 속에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면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안정적이고도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한다. 물론 때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이 부모의 대처 자세다.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느끼는 심리적, 감정적 안정성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지만, 아동의 지적 능력과 복지감 및 건강 등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인제부터 무엇을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행복과 자녀양육의 환경이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엄마들이 자녀양육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한다. 일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공부시키고 무엇을 해 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이다. 자녀양육은 이런 문제 그 이상의 것이다. 한 개인이나 부모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부모가 부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매우 복잡하고 심세하다. 이 가운데 사는 부모들이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자녀양육의 문제를 단순히 부모-자식간 관계로만 보지 말자. 하나님과의 관계 및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의 맥락으로 사고하게 된다면, 더욱 큰 주님의 축복이 가정과 아이에게 임할 것이라 믿는다. ☺



김정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런디쉬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필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요즘에는 너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일반적인 출발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관련 인식이나 태도가 세상과 별 차이 없다는 점이다. 믿음의 가정으로 중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 우리가 듣는히 세계 되기를 기대한다.

**결혼은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미션 윌드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싶다. 저자 프레드 로워리는 “결혼관이 바뀌면 배우자를 쳐다보는 시선도 바뀐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처럼, 결혼과 관련해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은 자기 결혼관을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속적인 결혼관에서 성경적 결혼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언약'. 결혼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이해하면, 배우자와의 관계 및 결혼 생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저자는 바울의 언약 개념을 결혼에 적용한다. 서로 다르고 보완하며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두 남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혼을 법적 계약으로 이해하는 한 불가능하다. 법과 규칙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어기가 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반면 언약은 관계이므로 영구적인 효력이 있다. 바울이 말하였듯,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된다. (엡 2:12 참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언약이 없다면 결혼 생활에 소망 돌 곳이 과연 있겠는가? 결혼을 깨뜨리는 심각한 위험이 언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약 없는 결혼은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이 되고 만다는 점이다. 결혼을 부부만의 문제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는 무의미해진다. 결혼에 있어 하나님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두 사람만의 결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저자는 일반적인 법적 결혼과 성경적 결혼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 전자는 깨어질 수도 있는 계약 관계지만, 후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임함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언약임을 강조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혼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확고하다. 이혼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피해야 할 죄라는 것이다. 결혼한 이상 최선의 길은 부부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헤쳐나가는 데 있다고 보인다.

이런 견해를 전근대적이고 편협한 것이라고 평가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요즘의 결혼관과는 크게 다르니, 일말 그들의 평가가 옳게 보일 수도 있겠다. 현대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볼 때, 결혼관만큼 세속화된 영역이 또 있을까 싶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시류를 떠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대로 살 의무가 있다.

**은전함에 이르게 하는 학교**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의 책 두 권을 소개한다.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좋은씨앗)와 『부부학교』(CUP)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 생생한 사례들을 토대로 결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우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 그에 따르면,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 때문에 아니라, 도대체 왜 결혼하는 건지 궁금해하지 않는가? 후 사랑에 심취하거나 자신만의 행복을 원한다면 2~3년 마다 '세



『부부학교』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

로 결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저자는 우리 속에 숨어있던 욕망을 들추어내 정곡을 찌른다.

결혼은 과연 무엇인지, 저자의 입을 따라가 보자. 결혼은 한없는 모험의 큰 줄기이며 끝없는 영적 성장의 길목이고, 행복이러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향한 부르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각 사람이 온전하게 서도록 훈련시키는 학교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을까? 학교에 들어온 학생은 성장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자. 사실 결혼은 우리를 발기뻐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인격적 약점과 죄성이 일상 속에서 작나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부에 대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심지어 멸시까지 한다면? 결코 옳지 않다. 결혼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불완전한 사람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불완전한 부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변화시킬 순 없다는 사실이다. 우린 다만 자신이 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거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등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자. 바로 나부터!



결혼을 부부만의 문제로 여기거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차이는 무의미해진다. 결혼에 있어 하나님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두 사람만의 결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현재 고민과 내면의 깊은 갈등, 혹은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결혼 전보다 배우자에 대해 아는 부분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가? 결혼 후 10년, 20년이 지났으니 대충 안다고 착각하며 무심히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결혼에 주신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결혼과 관련한 우리의 얕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배우자를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적극적인 자세 역시 꼭 필요하다. 결혼에 관한 우리 중심이 성경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하며 책임을 권하고 싶다. 단순 지식과 정보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책을 읽자. 또한 기존 견해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적 독서라기보다는 생각의 틀을 확장하고 새롭게 하는 발전적 책임기에 도전해 보자. 6



김규주 박사 편집인 문화평론가, 목사,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신학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0년 가까이 시간을 출판기획자, 문화사역자로 사역해 왔다. (사)독교세계문화운동연합에서 COP 출판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